

고지도를 활용한 도시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Contents Development of Urban Tourism Using Old Maps

최지연*, 이익수**

김포대학 관광경영과*,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Ji-Yeon Choi(cjy4011@naver.com)*, Yk-Su Lee(tour8119@cju.ac.kr)**

요약

현대에 있어서 도시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증하고 있으며 관광현상에서도 도시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관광학 분야에서 도시관광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특히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관광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도시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동북아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 특히 도시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더 쾌적하고 매력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시키고, 기존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지도는 역사시대의 공간현상을 전해주는 귀중한 시각자료이며 제작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가능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지도는 우리 국토의 옛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이해하는 학문적 접근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따라서 고지도상에 나타난 사상(事象)을 현실화하여 차별화된 도시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고지도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도시관광 | 고지도 | 콘텐츠 | 강릉 |

Abstract

Although many Korean cities are getting interested in promoting its attractiveness as a tourism destination, they have little distinguishing attractiveness. In order to reinvigorate competitive urban tourism, developing more charming tourism resources and studying urban contents including its historicity and regionalism regarded as an effective means. By examining old map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competitive contents of urban tourism focused on the case of Gangneung.

■ keyword : | Cities Tourism | Old Map | Contents | Gangneung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현대에 있어서 도시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증하고 있으

며 관광현상에서도 도시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2004년 뉴욕을 방문하는 해외방문객률이 플로리다의 해외방문객률을 앞질렀다는 보고는[1] 도시관광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러나 관광학 분야에서 도시관광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특히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들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력과 차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관광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도시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동북아관광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매력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시키고, 기존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관광은 독특한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도시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은 활동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인데[2], 현재 한국의 도시관광은 그 차별적 매력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관광과 관련된 콘텐츠의 접근이 획일적이며 친편일률적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는 독특한 장소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3]. 특히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의 경우 다른 도시관광 콘텐츠와의 확연한 구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관광자원의 비차별적 개발은 도시관광 콘텐츠 접근과 개발 및 활용에서 다른 접근방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고지도는 우리 국토의 옛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 역사를 이해하는 많은 분야의 학문적 접근의 기초를 제공한다. 즉, 고지도는 역사 시대의 공간현상을 전해주는 귀중한 시각자료이며[4] 제작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고지도는 과거에 존재했던 세계와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각 자료이다[5]. 그러므로 역사성과 지역성이 함재된 고지도상에 나타난 사상(事象)을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자원화함으로써 도시관광 경쟁력과 매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도시관광이 가능한 강원도 강릉을 사례도시로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II. 이론연구

1. 도시관광 콘텐츠개념

본질적으로 관광이 갖는 집중화 현상[6]은 도시로 하여금 도시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의 유물과 유적, 관광자원, 정책적 개발 등과 같은 관광적 요소와 더불어 도시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의해서도 관광객을 유인(pulling)하는 성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는 관광자원의 복합체라는 특성을 갖는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의 도시는 한 국가나 지역의 출구·입구로서의 기능과[7]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매력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배후관광시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가 지니는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따라서 도시는 도시내부의 이용객과 도시 외부의 방문객에 의해 도시의 매력물과 도시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당도시 내부에서의 모든 관광활동 현상이 일어난다. 도시관광이란 도시내부 혹은 도시 외부인에 의해서 도시의 각종 매력물과 편의시설 및 도시의 이미지를 관광대상으로 하여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의미하며[8] 도시의 독특한 삶의 양식과 문화를 체험하는[9] 문화관광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도시관광의 대상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시설 등에 따라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도시관광의 대상에 대해 논의를 할 때 기존의 관광자원의 분류에 의해, 혹은 도시 내외부인에 의한 방문율이 높은 순위 등으로 매겨지는 시설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촌락 혹은 농촌과의 반대개념으로 자연적인 것 보다는 인공적인 자원에만 치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역사문화도시의 경우 수많은 문화재를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성 자체가 도시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역사적 시공간에 대한 문화적 재해석 과정을 거쳐[10]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시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해당도시가 자연적 성격의 자원이 주된 관광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의 도시관광의 요소가 도시라는 공간에서의 관광자원과 시설로 대별되었다면 도시관광 콘텐츠는 도시관광의 요소가 되는 내용물로서 관광자원화되기 이전의 내용물로 규정한다. 따라서 특정도시의 매력물과 편의시설, 그리고 잠재적 항목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고지도 현황과 활용

고지도는 근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로 국방과 행정의 필요에서 제작하고 천연색으로 산과 강, 각종 시설물을 회화식으로 그리고 풍수적 관점에서 땅을 살아 있는 생명체로 바라보고 그렸다는 점에서 현대지도와 다르다. 고지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지도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전국이나 도와 같이 큰 지역을 단위로 그릴 때 官衙, 市場, 倉庫, 寺刹, 山城 등과 같은 세부적인 문화재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지도는 현대의 관광용지도의 경우나 가끔 이용되어 현대의 관광용 지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11]. 고지도는 시대간 내용의 비교를 통해 지역구조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역에 담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12].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국내 최대의 고지도 소장처이다. 규장각 소장 고지도는 대부분 유일본으로서 정교한 양식과 뛰어난 회화성이 특징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약 220여종, 1100여책(첩), 6000매(면)에 달하는 고지도가 독립된 형태로 전한다. 대부분이 채색필사본으로 되어 있고 국가 기관에서 제작한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1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도는 크게 지방도와 전국도로 나눌 수 있다. 지방도는 도별, 읍별도 지도를 정리한 것으로써 하나의 군현을 대상으로 대부분 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전국도는 조선 전국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제작된 것으로 동여도, 여지도와 같은 요소가 있다[14].

현재 규장각의 고지도는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의 史部 地理類에 분류되어 있으며 규장각에 소장된 지도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지도, 전도, 도별도, 군현지도, 관방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 중에서 도 가장 많이 소장된 유형은 단연 군현지도이다[15].

고지도자료는 학술적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지도 자료를 파악하여 이를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과 각 지도에 대한해제 작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고지도는 다양한 학

문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지리학의 분과학문 중 역사지리학 분야에서도 고지도자료를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는데 과거 지역(공간)의 복원과 변화를 추적하는 데에 고지도가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무엇보다 고지도는 기록문화유산중 대표적인 시각 자료이기 때문에 전시에서 활용될 여지가 어떤 자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문화상품의 개발에 고지도가 활용될 수 있다[16].

III. 고지도상에 나타난 도시관광 콘텐츠 분석

사례도시인 강릉에 대한 고지도는 해동지도, 여지도, 비변사인방안지도, 조선지도, 동국여지도, 광여도, 청구도, 청구요람, 대동여지도, 동여도, 1872년 지방지도이다. 고지도에 대한 분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제공하는 분류를 이용하여 회화식과 방안식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였다.

1. 회화식 지도 - 해동지도, 여지도, 광여도, 1872년 지방지도

해동지도는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 집으로 여지도와 공통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해동지도는 강릉부는 성곽안에 客舍, 衙舍, 倉이 있으며 성밖에 鄕校가 있고 여지도 역시 성곽안에 있는 관아건물과 객사이다. 객사는 모든 지도에서 중심 건물로서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교와 오봉서원, 송담서원은 강릉의 대표적 교육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지도의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되어진 월정사 근처의 史庫는 1606년(선조 39)에 세운 것으로 朝鮮王朝實錄과 주요문서를 보관하던 곳이다. 해동지도는 빨간색으로 도로를 표시하였으나 여지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차이가 있다.

강릉의 진산인 대관령과 대표적 석호인 향호와 풍호, 경호 또한 표시되어 있어 강릉의 대표적 자연 특성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릉부 지도에 대관령은 주요 고개로, 강릉의 진산으로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5대 史庫 중의 하나였던 五臺山史庫도 2층의 樓閣 형태로 그려 놓았다. 또한 영동지역의 대표적 석호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浦로 표시된 곳은 경포호를 말하는데 주변에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포대를 표시하고 있어 이전의 지도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찰로는 상원사와 보현사, 월정사, 청학사, 용연사 그리고 한송사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서는 향교와 오봉서원, 그리고 송담서원이 같이 표시되어 있다. 오봉서원은 휴전선 이남에서 공자를 배향하는 유일한 서원이며 송담서원은 율곡 이이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학생을 교육하던 곳으로 1660년 3월에 국가로부터 송담서원(松潭書院)이란 액자(額字)를 하사 받은 사액서원(賜額書院)이다. 다른 지도와는 다르게 관아나 객사건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타지도와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 해동지도

광여도 전체의 구성은 해동지도와 유사하다. 광여도는 해동지도와 유사한 18세기 군현지도집이 민간에 유통되면서 만들어진 지도집이다. 상당수의 군현지도들은 지도의 윤곽이 해동지도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나 도로를 표시하고 있지 않고, 주요 교통로 상의 역원과 고개 등을 표시했다(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광여도 배우성 해제). 영동과 영서의 고개인 대관령이 표시되어 있고 경호와 풍호, 향호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도와 마찬가지로 객사가 강릉부 중심에 중요한 건

물로 그려져 있다. 향교의 위치로 짐작되는 곳에 그림으로는 그려져 있고 강릉의 대표 서원인 오봉서원과 송담서원은 표시되어 있다. 사찰로는 한송사와 신라 선덕여왕때 자장법사에 의해 지어진 월정사만이 나타나 있어 제작당시의 두 사찰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오대산에 위치한 史庫가 표시되어 있어 史庫가 얼마나 중요한 건물인지 말해준다.

1872년 지방지도는 음성으로 둘러싸인 읍치에는 동헌과 객사 건물이 중요한 건물로 그려져 있고, 향교도 중요 건물로 나타나고 있다. 오대산에는 1606년(선조 39)에 설립된 史庫의 모습도 잘 나타나 있다. 당시의 강릉부는 현재의 강릉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었고 오대산은 강릉부에 속해 있어서 지도와 지지류에 강릉의 산으로 명시되어 있다. 지도에 나타난 붉은 색 선은 도로를 표시한 것인데 도로변에 위치한 역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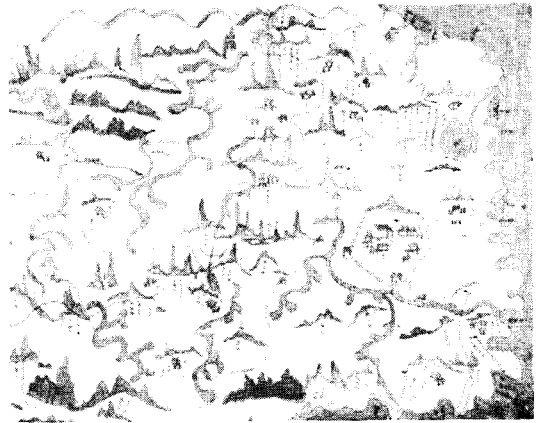


그림 2. 1872년 지방지도

도로변에 위치한 역은 구체적인 이름은 적혀있지 않고 그 외의 역은 이름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대관령을 비롯한 고개의 명칭도 기입되어 있다. 동해안의 바닷가 근처에는 관동팔경 가운데 가장 경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경포대와 경포호의 모습도 보인다. 사찰로는 보현사, 상원사, 월정사, 용연사, 한송사, 청학사가 표시되어 있다. 옥계면과 대화면에 표시된 장시는 다른 지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것을 통해 상업활동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2. 방안식 - 청구도, 청구요람, 비변사인방안지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조선지도

청구도에는 강릉의 옛 지명이 표시되어 있고 주요도로와 하천이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의 남대천을 의미하는 남천이 표시되어 특이하다. 또한 경포호와 경포대 뿐만 아니라 취원대(聚遠臺) 한강정(寒江亭) 해령대(海靈臺) 해송정(海松亭) 한송정(寒松亭) 허이대(許李臺) 등의 각종 누정이 표시되어 있어 당시 많은 누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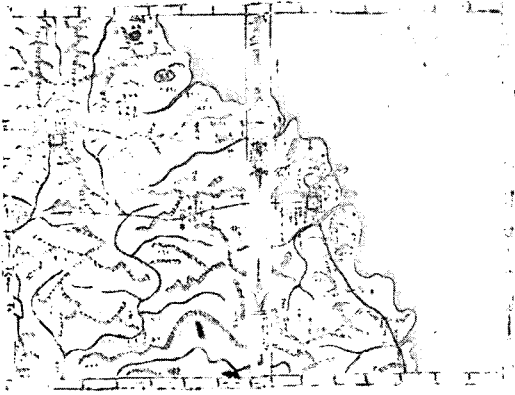


그림 3. 청구도

또 관아건물과 객사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아건물의 부속건물인 운금루가 표시되어 있어 관아건물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세조와 관련하여 오대산 부근에는 사교와 함께 '세조 병신년에 (세조가) 머물면서 과거를 실시하여 선비를 뽑았다'와 경포호 부근에 세조가 머물렀다는 역사적 유래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동여도에는 조선후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인문 정보가 대부분 담겨 있다. 육로,해로 등의 교통로와 진보봉수(鎭堡烽燧) 등의 군사시설이 특히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十里마다 방점을 찍어 각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평지와 산지의 방점 길이를 달리하여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거리를 표시하였다. 아울러 郡縣의 경계와 역사지리적인 정보가 많이 수록된 점도 이 지도의 자료적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오대산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동해

안에는 마호, 향호, 경포 등 석호가 나타나 있고, 경포대, 해송정, 강문교 등 명승지가 표시되어 있다. 오대산 부근에는 한강의 발원지라고 신성시 여기는 우통수가 표시되어 있고, 오대산 사교, 상원암과 월정사가 나타나 있다. 이 지도에서 보여지는 점막으로는 월정가점(月精街店)과 청심대점(淸心臺店)이다. 이는 강릉-구산-진부-방림으로 이어지는 경강직통로상에 있는 점막이다. 공공기관인 제민원도 동여도에는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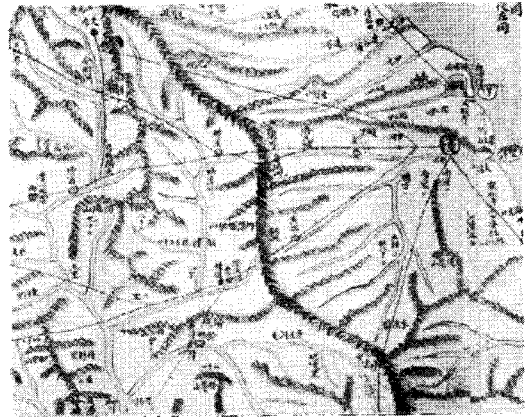


그림 4. 동여도

청구요람은 청구도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관아표시 대신 운금루(雲錦樓)를 표시하고, 강릉 옆에는 대부(大府)라고 기록하고 있다. 본 지도의 특징에서 설명되었듯이 '강릉'옆에는 고구려와 신라의 지명이 나란히 적혀있다.

강릉의 대표적인 산으로 이미 기록되어진 오대산과 대관령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으며 오대산에는 史庫와 그 우측에 1466년(세조 12)에 설치되었다는 간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동해안 석호로 유명한 경포는 그림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또다른 향호도 표시되어 있으며 경포호 그림 주변엔 관동팔경의 하나이며 강릉의 대표적 누정인 경포대가 표시되어 있으며 세조가 머물렀던 기록을 표시하고 있어 당시의 명승을 짐작할 수 있다. 강릉을 가로지르는 남대천의 기록(남천(南川))과 하안 백사장을 나타내는 백사(白沙)의 기록도 담겨있으며 송담서원이 표시되어 있다. 대관령(大關嶺) 부근에서는 청구도와 마찬가지로

바로 범일국사의 탄생설화에 얽힌 돌샘(石泉)이다. 천석(泉石)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곳은 대관령 아래부분인 지금의 학산근처에 표시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군현도 중 일리방안(一里方眼)을 구획해 그리고 비변사인(備邊司印)이 찍혀 있으며 호구·전결·봉수·진보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지도가 비변사인방안지도이다. 浦로 표시된 곳은 경포호를 말하는데 주변에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포대를 표시하고 있어 이전의 지도와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찰로는 상원사와 보현사, 월정사, 청학사, 용연사 그리고 한송사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서는 향교와 오봉서원, 그리고 송담서원이 같이 표시되어 있다.

대동여지도에서 강릉은 13첩 1면과 13첩 2면에 해당된다. 13첩 1면은 바닷가를 따라 도로가 그려져 있고 백사정(白沙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의 경포해수욕장을 말한다. 대동여지도는 1861년과 1864년에 제작되었는데 이 당시의 지도에도 한송사가 표시되어 있어 강릉의 대표적 사찰로서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포대와 해송정, 계민원, 史庫, 오대산 등이 표시되어 있다. 경포대는 경포호수 그림위쪽에 그리고 해송정은 그 맞은 편에 나타나 있어서 당시 경포호수 주변의 대표적인 누정으로 사료된다. 오대산과 사고는 거의 모든 지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어 당시의 사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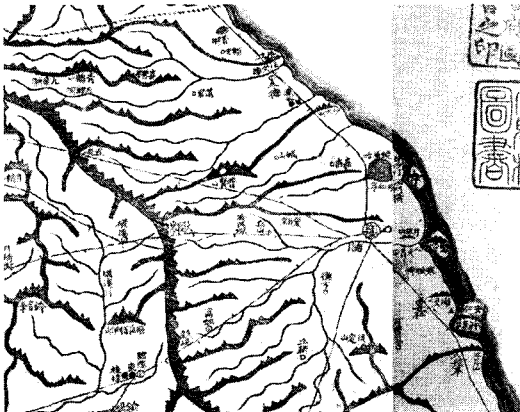


그림 5. 대동여지도

않고 붉은 색 동그라미로만 표시되어 있어 특이하다. 기존 지도에서 보여졌던 향교와 오봉서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이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송담서원만이 표시되어 있다. 읍치 왼쪽 방향에 표시된 大關峯과 오대산과 오대산 사고, 그리고 사찰로는 유일하게 기록된 월정사가 주요 산과 건물로 표시되어 있고 봉수가 표시되어 있다. 대표적 석호로 경포와 향호만이 표시되어 있어 기존 지도에서 나타났던 풍호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경포가 강릉의 대표적 자연특성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통치에 필요한 중요 사항만을 골라 표시하고 각 고을의 특성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강릉부에서 각각의 가장 대표되는 것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타 - 동국여지도

동국여지도는 여타의 강릉부지도가 아닌 강원도 지도의 일부이다. 하천을 중심으로 26개의 군현이 그려진 소략한 지도로서 관동팔경의 지역의 누대-송석정(叢石亭), 삼일포(三日浦), 청간정(淸澗亭), 낙산사(洛山寺), 경포대(鏡浦臺), 죽서루(竹西樓), 망양대(望洋臺), 월송정(越松亭)-를 표시하고 있어서 당시의 관동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추측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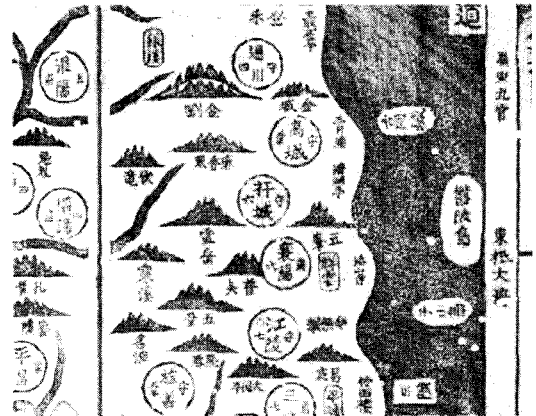


그림 6. 동국여지도

조선지도의 강릉지도는 관아건물이 표시되어 있지

IV. 분석결과 및 도시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1. 분석결과

강릉에 대한 고지도를 분석한 결과 지도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지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과 현재 강릉의 관광컨텐츠와의 비교를 위하여 강릉시청 관광문화 홈페이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고지도 상에 나타난 대부분의 유물유적은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문화유산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강릉의 오랜 역사속에서 남겨진 유물유적은 강릉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경포와 경포대는 강릉팔경과 경포팔경등과 같이 현재에도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성격의 관광자원보다는 백사장을 중심으로 한 여름관광지로서만 각인되어 있어 경포와 경포대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부여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실제로 강릉시의 강릉통계연보 2005에 따르면 2004년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는 전체 21,373,097명으로 이중 6월, 7월, 8월의 관광객 수는 각각, 2,671,718명, 4,474,862명, 6,983,711명이다[17]. 이는 전체 관광객의 66.11%를 차지하는 것으로 강릉을 찾는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여름철에 편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객사를 중심으로 한 관아건물은 현재 강릉부 객사인 임영관은 지난 2000년부터 전통문화도시 도심 관아유적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영관지내에 전대청, 중대청, 동대청, 서헌 등 4개 건물이 복원[18]되어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과거 고지도에 나타난 있는 사찰이나 서원, 기석호, 누정 및 기타는 그 형태가 보존되어 전해지는 것과 전해지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전해지는 경우에도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송담서원의 경우 강릉의 대표적 인물로 손꼽히는 울곡선생과 연관있는 서원이지만 울곡선생의 탄생지인 오죽헌과의 연계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는 오죽헌과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로 보이나 그보다는 울곡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송담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일부 지도에서 확인된 천석, 월정가점, 청심대점, 제민원, 장시 등은 현재 강릉시가 제공하는 관광 관련 정보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독특한 관광콘텐츠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강릉의 고지도의 분석

지도 종류	회화식				방안식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경포	0	0	0	0			0	0		0	
경포대				0	0	0	0	0	0		0
관아건물	0	0	0	0	0	0					
인사관련					0	0					
사찰	2	2	2	6	1	2	6	5	5	2	
서원	2	2	2		1	1	2			1	
향교	0	0		0							
사고	0	0	0	0	0	0	0	0	0	0	
대관령	0	0	0	0	0	0	0	0	0	0	
도로	0			0	0	0	0	0	0	0	
역	10	10	11	7	10	9	12	14	15	11	
백사장					0	0		0	0		
기타석호	2	2	2		1	1	2	2	2	1	
기타누정			1	1	6	2	1	3	3		
기타	2		1	1	3	2	2	5	5		

① 해동지도 ② 여지도 ③ 광여도 ④ 1872년 지방지도 ⑤ 청구도 ⑥ 청구요람 ⑦비변사인방안지도 ⑧동여도 ⑨대동여지도 ⑩조선지도 ⑪동국여지도 O : 고지도에 표시됨

주) 본 분석에 사용된 고지도는 필사본을 위주로 하였으며 대동여지도와 동국여지도는 목판본임

2. 도시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강릉지방의 고지도를 활용하여 도시관광의 차별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강릉의 대표인물을 이용한 콘텐츠 연계개발이다. 이이는 강릉의 대표적 인물이며 이이와 관련된 오죽헌 또한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다. 기존의 이 두 관광 자원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이이의 위패가 봉안된 송담서원은 고지도를 통해 당시의 대표적인 강릉지방의 서원으로 확인된 바 이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강릉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련 이미지와 관광과의 결합으로 교육관광의 콘텐츠를 차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강릉시가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결과와도 시의적절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계문화유

산으로 등록된 강릉단오제의 대표적 인물인 범일국사 또한 대관령을 비롯하여 그의 출생설화가 전해지는 학산과의 연계를 통해 단오제의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존의 관광자원에 대한 새로운 매력성을 부여하는 콘텐츠 개발이다. 경포와 경포대는 강릉의 대표적 자연관광자원으로 인식되어있는 대표적 관광자원이다. 고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당시의 대표성 부여와 고지도상의 기록을 경포와 경포대 콘텐츠에 접합하여 단순하게 인식되는 경포와 경포대의 관광이미지와 관광활동에 대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고지도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새로운 숙박시설을 통해 차별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고지도상에서 확인된 객사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도로에서의 원(院)과 점(店)을 활용하여 과거의 숙박시설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다. 특히 대관령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관령 옛길 걷기 행사와 더불어 과거 숙박시설 체험이 가능하므로 이는 주변 관광도시와의 숙박체재시설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 관광도시의 경우 대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춘 반면 강릉은 상대적으로 경유형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숙박시설을 독특한 체재활동으로 특화하여 강릉의 체재형 관광지의 대표적인 숙박형태로 적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새로운 기념품을 개발하는 콘텐츠로 활용가능하다. 고지도의 뛰어난 회화성과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형의 특성을 이용하여 강릉의 고지도 자체를 이용한 기념품 제작이 가능하다. 손수건, 스카프는 채색그대로 이용하거나 문양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생활소품에, 장식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고지도를 활용

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자 강릉을 사례도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지도를 활용한 도시의 관광콘텐츠 개발은 해당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며 고지도 분석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은 타도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차별성을 가지게 되므로 경쟁력과 매력성을 갖춘 콘텐츠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도의 기본특성상 타지역과 동일할 수 없음과 해당지역에 대한 축소 측면에서 볼 때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고지도를 활용하는 것은 비차별성을 해결하고 독창성과 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 콘텐츠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고지도가 강릉에 대한 고지도의 전부는 아니며 중요한 지도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고지도를 활용한 콘텐츠개발 방안은 기존 관광학계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석형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는 물론 향후, 현재의 관광지도와의 비교연구 등 이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http:// www.tia.org/pressmedia/pressrec.asp](http://www.tia.org/pressmedia/pressrec.asp)
- [2] C. M. Law, *도시관광(Urban Tourism)*, 백산출판사, 1999.
- [3] 이영주,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공간의 개발방향", 서울도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4권, 제2호, p.51, 2003.
- [4] 양보경, "고지도보급사업의 현황과 전망", 국토연구원, 제173권, p.65, 1996.
- [5] 오상학,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서울대 규장각, 제26집, p.61, 2003.
- [6] 이재섭, 최지연, "관광산업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관광개발연구소, 제14집, p.136, 1999.
- [7] 이장춘, *최신관광자원학*, 대왕사, pp.147-148,

1997.

- [8] 김향자, 유지윤, 도시관광 진흥방안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p.5, 2000.
- [9] 김성진, 관광레저도시 개발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19, 2005.
- [10] 이현균, “역사적 시간과 장소의 문화콘텐츠적 성격과 관광자원화”,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2권, 제3호, p.409, 2006.
- [11] 한영우, “조선시대 강원도 고지도”, 강원발전연구원, 강원학연구 창간호, pp.103-105, 2005.
- [12] 김기혁, “지역연구 자료로서의 부산지역 고지도 기초연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산지리9, p.46, 2000.
- [13] 오상학,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서울대 규장각, 제26집, p.61, 2003.
- [14] http://e-kyujanggak.snu.ac.kr/sub_index.jsp
- [15] 오상학,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서울대 규장각, 제26집, p.62, 2003.
- [16] 오상학, “규장각 소장 고지도 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서울대 규장각, 제26집, pp.72-74, 2003.
- [17] 강릉시, 강릉통계연보, p.208, 2005.
- [18] <http://www.gntour.go.kr>

이 익 수(Yk-Su Lee)

정회원



- 1995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관광학석사)
- 2000년 8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관심분야> : 관광자원, 문화관광, 관광정책

저 자 소 개

최 지 연(Ji-Yeon Choi)

정회원



- 1998년 2월 : 관동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7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05년 8월 ~ 현재 : 김포대학교 관광경영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 관광도시, 역사관광, 관광자원